

2026년 미얀마 정세 변화와 대한민국의 경제안보 실용외교 전략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미얀마 경제안보연구회 (KMAESS)

- 목 차 -

제1장. 서론 및 연구 배경

제2장. 2026년 미얀마 대외 전략 및 정세 진단

제3장. 지정학적 요충지 미얀마의 경제안보적 가치

제4장. 대한민국의 대미얀마 경제안보 실용외교 전략

제5장 한·미얀마 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3대 정책 아젠다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장. 서론 및 연구 배경

1.1. 2026년 동남아 정세와 미얀마의 전략적 재조명

2026년 국제질서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경제안보 중심의 국제협력 확대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미얀마는 역내 안보와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국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6년 총선 이후 출범한 미얀마 신정부는 국내 정치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강대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얀마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인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더욱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대(對)ASEAN 정책과 경제안보 전략에도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미얀마는 더 이상 인도적 지원이나 민주화 문제만으로 접근할 대상이 아니다. 공급망 안정, 핵심 광물 확보, 인도양 물류축, 신흥시장 개척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한·미얀마 협력의 방향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1.2. 보고서의 목적 및 KMAESS의 실행 비전

본 Policy Brief는 2026년 미얀마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실용적 대미얀마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미얀마의 대외전략을 지정학적 중간국(Geopolitical Middle Ground State)의 전략적 헤징(Strategic Hedging)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기존의 단편적·이념적 접근을 넘어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경제안보 시대에 부합하는 대미얀마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아젠다와 실행 방안을 제안한다.

사단법인 한국-미얀마 경제안보연구회(KMAESS)는 이러한 정책 연구를 기반으로 정부, 국회, 산업계 및 학계를 연결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서 정책 연구, 경제협력, 시장 진출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제2장. 2026년 미얀마 대외 전략 및 정세 진단

2.1. 지정학적 중간국(Middle Ground State)과 전략적 헤징(Hedging)

미얀마 외교 정책의 본질은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자국의 생존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지정학적 중간국'의 헤징 전략에 있다. 미얀마는 특정 강대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Bandwagoning)을 지양하고, 복수의 강대국과의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헤징(Hedging)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2.2. 2026년 5월-6월 연쇄 외교 행보 분석

이러한 헤징 전략은 2026년 5월과 6월에 펼쳐진 연쇄 고위급 외교 행보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1. 인도 방문 (2026.05.30 ~ 06.03):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과 맞물려 인도양 안보 협력 및 국경 지대 안정을 논의함으로써, 중국 일변도 외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역내 균형추 역할을 모색하였다.

2. 중국 방문 (2026.06.15 ~ 06.19):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의 지속 추진을 확인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대중 협력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헤징 외교를 전개하였다.

미얀마 최고지도부의 전략적 해징 정보	
[2026.05.30 ~ 06.03] 인도 공식 방문	[2026.06.15 ~ 06.19] 중국 공식 방문
• 신동방정책(Act East) 연계 • 인도양 물류 및 안보 협력 • 균형 외교를 통한 입지 확보	•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 • 핵심 자원 및 인프라 투자 • 경제적 실리 및 국정 안정

제3장. 지정학적 요충지 미얀마의 경제안보적 가치

3.1. 경제안보 시대, 왜 미얀마인가?

오늘날 국제질서는 경제와 안보가 분리되지 않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공급망 안정성, 핵심광물 확보, 에너지 안보, 전략산업 육성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으며, 각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얀마는 더 이상 단순한 개발협력 대상국이 아니다. 풍부한 전략 자원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동시에 보유한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중장기 경제안보 전략에서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전략적 파트너이다. 특히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 ASEAN을 연결하는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어 공급망 재편과 지역경제 통합 과정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3.2. 인도양과 ASEAN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허브

미얀마는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인도양과 벥골만으로 연결되는 해상 접근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특히 라카인주 싯트웨(Sittwe) 항구는 중국의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 인도의 칼라단 복합물류 프로젝트(Kaladan Multi-Modal Transit Transport Project), ASEAN 역내 물류망이 만나는 전략적 거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미얀마의 항만, 도로, 철도 및 물류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확충될 경우,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국제물류 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를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닌, 인도-태평양 전략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국가 차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3.3. 전략광물과 에너지: 대한민국 공급망 안정의 새로운 축

미얀마는 천연가스뿐 아니라 희토류, 니켈, 구리, 주석, 텅스텐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전략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들 자원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항공우주, 방위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산업과 직결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은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는 전략광물과 에너지 공급망의 잠재적 협력국으로서 충분한 정책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자원 개발은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역사회와의 상생, 국제 규범 준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한-미얀마 협력 역시 지속가능성과 상호 호혜성을 기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3.4. 새로운 성장시장으로서의 잠재력

미얀마는 약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기반으로 제조업, 농식품, 디지털경제,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 재건과 경제 정상화가 본격화될 경우 전력, 교통, 도시개발, 스마트 행정, 보건의료, 교육, 디지털 인프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제조업 투자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금융, 물류, 직업훈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대한민국의 대미얀마 경제안보 실용외교 전략

4.1. 실용주의에 기반한 대미얀마 정책 전환

2026년 미얀마의 정치·외교 환경 변화는 대한민국의 대미얀마 정책에도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 불안정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정책 기조에서 나아가,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국익을 함께 고려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 신흥시장 진출 등 국가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대미얀마 정책 역시 이념적 접근과 실용적 협력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4.2. 경제안보 중심의 협력 전략

대한민국은 미얀마와의 협력을 경제안보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급망 안정과 전략광물 협력을 위한 정부 간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에너지와 인프라, 디지털 산업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투자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제도와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정책금융과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4.3.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체계 구축

경제안보 시대에는 정부의 외교만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어렵다. 정책 연구기관과 산업계, 국회 및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정책과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특히 정부 간 협력(Track 1)과 민간 교류(Track 2)를 연결하는 Track 1.5 협력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책 대화와 산업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협력체계는 현지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4.4. 정책 추진 방향

향후 대한민국의 대미얀마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1. 정부 간 정책대화 채널의 단계적 복원
2. 경제안보 중심의 협력 의제 발굴 및 확대
3. 공급망·에너지·디지털 산업 분야 협력 강화
4.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시장 진출 지원체계 구축
5. 정책 연구와 산업협력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 활성화

이러한 전략은 한·미얀마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경제안보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제5장 한·미얀마 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3대 정책 아젠다

5.1. [아젠다 1] 공급망·전략광물 및 에너지 실질 협력

○ 전략광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미얀마 북부 중히토류 및 주요 광산 지대의 수급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 ESG 기반의 상생형 자원개발 협력: 기존 가스전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친환경 ESG 기준을 준수하는 상생형 자원 개발 모델 추진.

5.2. [아젠다 2] 산업 인프라·디지털 및 인적자원 교류 확대

- 인프라 재건 및 친환경 에너지 협력: 전력난 해소를 위한 태양광·수력 인프라 및 도시·교통 재건 사업 참여.

- 디지털 전환 및 숙련 인력 교류: IT/디지털 행정 인프라 현대화 지원 및 국내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술 인력 교류 프로그램 추진.

5.3. [아젠다 3] '민관합동 싱크탱크 및 정책 실행 플랫폼' 구축

정부(Track 1)의 정책적 신중함과 민간(Track 2)의 민첩성을 결합한 '민관합동 싱크탱크 및 정책 실행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이는 정부 부처(산업부·외교부) 및 공공기관(KOTRA, 한-아세안센터 등)이 정책 연구 및 현지 기업 지원 사업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정책 연구, 현지 조사, 기업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민관협력 모델로 발전할 때 그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1) KMAESS의 독보적 실행 역량과 차별화된 인적 구성

KMAESS는 미얀마 외교전략 연구의 학술적 통찰과 현지 문화·정서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 대통령을 비롯한 미얀마 최고위급들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리더십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여기에 전 주미얀마 대사, 금융전문가, 미얀마 전문 전·현직 교수진, 현지 진출 중견·중소기업 전·현직 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내에서 드문 미얀마 전문 정책 연구 및 실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정책 연구와 경제협력, 기업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민간의 현장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

2) 정부 및 유관기관 연계형 3대 실증 사업 모델 (용역 제안 아젠다)

- [모델 A] 국회 연계 정책 공론화 메커니즘 (창립기념 세미나): 한국-미얀마 의원친선협회와 공조하여 2026년 미얀마 정세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산·학·연·관 정책 네트워크 구축.

- [모델 B] 외교부·산업부 연계 '경제안보 정책 아젠다 용역 프로젝트': 현지 고위급 네트워크를 활용한 미얀마 정부 고위인사 인터뷰 및 주요 경제그룹(KBZ, SSS, MAI, UMFCI 등) 미팅을 추진하고, 실시간 정세 및 정책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 [모델 C] KOTRA·한-아세안센터 연계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시장개척 컨설팅 용역': 핵심 광물 및 인프라 공급망 교란 위험을 분석하고, 국내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공급망 체크리스트 배포 및 시장개척 및 투자진출 컨설팅 지원.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6.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026년은 미얀마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시각을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미얀마는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지만, 국제질서의 변화와 경제안보 시대의 도래 속에서 공급망 안정과 전략광물 확보, 신흥시장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최근 미얀마는 특정 강대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을 지양하고 중국, 인도, ASEAN 등과 실용적 균형외교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도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미얀마를 단순한 개발협력 대상이나 정치적 리스크 국가로만 인식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국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 시대에는 외교와 산업, 공급망과 통상정책이 긴밀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대미얀마 정책 역시 단편적인 외교 접근이 아니라 경제안보와 산업협력, 민간 교류를 연계한 종합적 전략으로 발전해야 한다.

6.2. 정책 제언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대미얀마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 간 정책대화 채널을 단계적으로 복원하여 변화하는 미얀마의 정치·경제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상호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

둘째, 공급망과 전략광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인프라·디지털 전환·인적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우리 기업의 미얀마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지 정책정보 제공과 시장조사, 투자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이 연계된 민관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정책 연구와 산업협력, 현장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실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6.3. 맺음말

경제안보 시대에는 국가 경쟁력이 정부의 외교역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정부와 기업, 학계와 연구기관이 함께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민관협력 체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대한민국과 미얀마의 협력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상호 신뢰를 축적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전문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다. KMAESS(한국-미얀마 경제안보연구회)는 미얀마에 대한 정책 연구와 현지 네트워크, 기업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한·미얀마 경제안보 협력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실용외교와 경제안보 전략을 실질적인 협력으로 구현해야 할 시점이며, 이를 통해 한·미얀마 관계는 상호 번영과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관계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